

< 2021 훈련도감 복습용 요약본 >

by 모아짚

Part 1. 현대시

- C1. 학생은 여기까지

30%: 매우 주관적인 문학 지문

70%: 매우 객관적인 선지

-> **선지에 집중!**

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?

- 방법론 X // 최소한, 충분한 정도만

- 1. 시간 나누기

- 2. 일반화하는 능력 (문학적 약속들)

- 유기적으로 읽자 X // 유기적으로 쓰였음을 고려하자 O

- **사실적으로 읽자! (있는 내용이나 똑바로 보자)**

학생 수준이 아니면 답이 아니다!!!

- 수능 당일에는 틀린 선지만 고를 수 있으면 된다 (매우 노골적) (**우리는 답만 고른다!!!**)

- 모르겠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물음표 치고 넘어가기

- 세모: 선지 뜻은 알겠는데 정답인지는 모르겠다

- 물음표: 선지 뜻도 모르겠다

-> 공부하는 세모와 물음표의 수를 줄이기 위한 과정! (절대 다 없앨 수는 없음)

현대시 읽는 순서: <보기> (가볍게) -> 시 (가볍게, 분위기와 정서 정도만 파악) -> <보기> -> 문제

선지에서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것

- 1. 극복 의지

- 2. 유사 <-> 상반, 대조, 대비

- 3. 긍정 <-> 부정

- 4. 구체적인 정서 표현

수능 당일:

- 시간 촉박할 수 있음 or 지문이 어려울 수 있음
 - > 시간 단축 필요 but 정확하게: **빨리 읽기 X, 빨리 결정 O**
- EBS 연계: **수능식으로 해석** (예전에 배운 지식 적용 X)
 - 뜻에 너무 집착 X (큰 흐름 보기, 단순 선지 대응)

확실한 답이 나올 때까지는 선부르게 답 고르지 말고 보류!

쉬운 문제도 수능 당일에 마주치면 틀릴 수 있으니 항상 당일을 염두에 두자!

'학생은 여기까지'의 범위

- 시는 쉽든 어렵든 상관 X // 어려운 문제가 중요
- 시는 최소한으로 읽기 (직독 -> 판독)
- 문제: 용어, 약속

직독: 분위기 파악이 목적 (시를 전체적으로 읽어봄) // 우리는 화자가 구분하는 걸 구별해야 한다!

- 상황 -> 정서, 태도 (비슷)
- 직접 써져 있는 정서는 그 자체가 분위기
- 간접: 풍경(배경) 묘사, 시적 대상

판독: 세부적인 의미 파악 - 문제의 <보기>, 선지를 통해서

- 문장 단위: 구조가 같으면 뜻도 같다! (아니라면 반대) // 직독할 때 파악
- 변화에 주목: 절대 놓치면 안 됨!
 - 시간: 회상(~던, ~더러 등)
 - 공간: (주로 소설에서)
 - 시적 대상:
 - A 봤다 B 봤다 C 봤다 ... -> 아 바뀌는구나
 - 외부 -> 자아 (유사 or 상반)
 - 정서: 부정적 -> 긍정적

- 화자 --(주된 관심사, 시선, 연상)--> 시적 대상

- 자연물 (다른 모든 것들에 적용 가능)
- 자아: 성찰
- 다른 사람: 특정인(그리움, 예찬, 연민), 공동체, 현대인(삶, 문명 비판) 등
- 자연: 자연 친화
- 인생: 성찰(그냥 깊이 생각, 깨달음) // 사회: 비판
- 기타

- 시적 대상: 막연할 때는 그냥 신경 X // 구체적이고 명확할 때 집중

독해:

- 정상:

- 1. 확인: 단어 추출
- 2. 정리: 문장화, 순서 정리
- 3. 이해, 추론: 조합

- 우리가 하는 짓: 1. 확인 2. 이해, 추론 (정리 X)

- 문장화, 순서 정리: 두 줄 넘는 발문은 무조건 해석!

- 모든 문장에 적용은 시간 낭비 // 결정적인 순간에만 사용 (뭔가 좀 아닐 때) (본능적으로)
- 주어 서술어 찾기 등

- 선 일치 후 추론: 대부분 선지는 이 선에서 해결됨

한 선지 붙잡고 오래 고민 중? 이미 출제자의 의도에서 멀어지는 중!

선지에서 단어 자체의 뜻 보지 않기 (명사의 상징성 따지지 않기) (맥락 반드시 고려)

당연히 맞는 말들에 의심이 들면 안 됨

- 자명한 선지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기

문학 기출 분석: 지문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는 것!

- 시간 너무 소요 X // 틀려도 좋으니 결정은 빨리

문학 용어를 작품으로 처리: 느슨하게!

분위기를 좌우할 만한 결정적인 표현 찾기!

-> 다른 정서 표현 나오기 전까지는 그 표현이 시 전체 분위기를 대표함

시간, 공간, 대상이 시상 진행 중 갑자기 전부 바뀜

-> 내용이 이해가 안 됨

-> 그냥 거기를 끊어버리기!

문제 푸는 순서 (1분 30초 절약)

- 내용

- 단독 지문

- 1. <보기> 없는 문제 (표면)

- 2. <보기> 있는 문제 (심층)

- 3. 복합 지문

- 한 작품씩 해결: 익숙한 지문, 짧은 지문부터

- 작품 하나만으로도 답이 나올 수 있음! (80%)

- 표현

- 4. 보편

- 5. 개별, 특수

@ 물기, 유연함 (생명력) <-> 건조, 경직 (죽음)

@ 생동감: 생 + 움직임

@ 시선의 이동: 상하, 좌우, 원근 등 좀 큰 이동

@ 청각의 시각화: 청각을 본 것처럼 표현

- 한 방에 '청각의 시각화'를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림 (시각 >>> 청각)

-> 청각을 집중적으로 찾기 (소리를 연상시키는 것도 청각적 이미지에 해당)

(생각나는 장면이 있거나 하면 시각적 이미지 존재)

@ 순응: 편안, 만족 (괴로움 X)

@ 병치

- 유사: 공통점 부각

- 상반: 대비 효과

@ 고뇌 = 힘듦 = 괴로움 = 내적 갈등 = 복잡한 심정

- 부정적 상황이면 O

- 강하게 표현될 필요 X

@ 시적 긴장: 몰입을 의미, 자명 (좋은 시는 다 시적 긴장이 있음) (소설에서의 긴장감과 다름)

@ 초월 지향 (영원, 무한, 진정한 자유 등) <-> 현실 (한계, 유한, 죽음, 고통, 구속 등)

- 현실 vs 환상, 낭만, 이상, 초월
- 문제 흐름: A가 초월을 뜻한다면 B는 현실(한계)을 의미한다 (or 반대)

@ 자조: 스스로를 조롱

@ 말줄임표, 명사형으로 종결 -> **무조건 여운 O**

@ 대화체: 통일된 개념 X

- 청자 존재 유무? 건네는 말투? (대체로 건네는 말투)
- 평가원 시험에 제대로 나온 적 X, 나와도 정답 선지인 적 X

(ex) 칠판에게 말 걸기: 말 건네는 방식 O / 대화 형식, 구성 X / 독백 X)

@ 친근한 어조: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느낌 포함

@ 부정적 현실을 대하는 화자의 다양한 태도: 포용, 체념, 비판, 극복 의지

-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만 말하고 화자가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지 않는 시도 있음

@ 화자의 말투

- 독백: 혼자서 중얼거림
- 독백체: 혼자서 중얼거리는 식으로 쓴 문체
- 대화: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. 또는 그 이야기
- 대화체: 대화하는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체

@ 반어: 반대로 말하기

- 주제로 직결
- (대화 중) 부정적 태도: 상대방에 대한 못마땅함, 냉소
- 고전시가에서 거의 없음 (역설도 마찬가지) (그래도 확인은 필수! 확산 금물)

@ 상징(진짜) vs 비유(가짜)

- - - - -

\$ '시상을 전개하고 있다' = 시의 내용이 전개됨 = 자명

\$ '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': 최소한의 중요함만 확인되면 그냥 자명

\$ '사물(자연물, 인공물)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'

- 의탁, 투영, 비유, 상징 (의탁 != 투영, 비유 != 상징 but 시험으로 나온 적은 X)
- 정서: 감정, 인식(앎), 태도(자세, 마음) // 선 인식 후 태도
- '드러낸다': '간접적으로' 내포

-> 잉여 사물은 없다! 사물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맞는 선지 (자명)

\$ 'A와 B를 연결 지어': 꼭 직접적인 연결이 아니어도 됨 (구체적 연결 방식에 대한 언급 X) -> 자명

\$ '의미를 부여하고 있다':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이니 O

\$ '~적', '옛보인다', '느껴진다', '바탕에 깔고 있다' 등: 비겁한 표현

\$ '적절하지 않은' -> 웬만하면 맞다고 쳐줘라

- C2. <보기> 없는 시 해석

<보기>가 없으면 시의 외연에만 집중!

'적절한', '적절하지 않은' 상관없이 틀린 선지는 X, 맞는 선지는 O 체크 - 습관화!

- - - - -

@ 회상: 그때의 정서는 드러나지만 회상을 하고 있는 현재의 정서는 X

-> 구분해야 함! (드러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)

- 화자가 / 시적 대상을 봄 or 어떤 상황에 처함 -> 정서

- 상황, 시적 대상 통해 정서 유추 가능 (정서가 직접 언급 안 되어있어도)

- 시에 써져 있는 것만 묻지는 X! 유추도 할 수 있어야 함

- but 교육적, 상징적 의미 + 비겁한 표현 (이의 차단)

@ 어떤 장소 '안', '속': 내면 형상하는 것일 가능성 높음

@ 우의: by 비유, 풍자(간접 비판)

- 원관념 -> 보조관념(이야기 구성(우화))
 - 1. 인간 -> 동식물
 - 2. 인간 -> 다른 부류의 인간
- 대체로 <보기> 통해 정보 제공
 - 문제 흐름: 원관념, 보조관념 일치시키기
- 중의적 해석 가능

@ 대상과의 합일 지향: 이런 건 원래 <보기>로 줌 (선지로 나오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됨)

- 1. 자연 // 2. 자아

@ 담담한 어조: 그냥 분위기 but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2가지

- 1. 관조: 깨달음 (문학) // 무관심 (독서 (미학))
- 2. 절제: 감정이 고조되는 상황

- 반대: 격앙, 분출 (강한 영탄 (호흡을 길게 하는 것))

- 감정과 담담 or 격앙 여부는 상관 X // **어조가 중요!**

@ 부사어 통해 정서 표현 가능

- + 교육적, 상식적 약속 고려해 정서 유추!

- - - - -

\$ '감각적으로 표현': 자명 (시각이 기본적으로 있음)

\$ '장면을 초점화': 자명 (장면이 있으면 초점도 있음)

\$ '목가적': 1. 자연에서 // 2. 평화로운 (유럽 시골) (한국 시골은 '향토적')

\$ '시상이 집약된 시어': 손 대지 말 것!

- 모든 시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시상이 집약된 시어가 있는 시에만 질문으로 나눔

- 1. 제목
- 2. 핵심 소재 (느낌)

\$ '의도적으로': 그럼 뭐 실수로 했겠냐?

\$ 비약: 지위나 수준이 크게 향상

- 크게(정도의 문제) or 향상(방향의 문제): 초점 어디에?
 - 문학에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방향 (정도의 문제: 문학에서는 어차피 다 뺏튀기)

\$ 시상의 전환 (어조 변화): 제일 마지막에 판단!!! 진짜 답할 게 없을 때에만!!! (나머지 선지부터 보기!!!)

- 1. 정서 변화
- 2. 대상 변화
 - 내용에 대한 부분 // 선뜻 판단하기 애매
 - > 판단 바로 안 나면 오래 붙잡고 있지 말자!!!
- 3. 변화
 - 노골적 -> 있다
 - 아예 없다 -> 없다
 - 애매...? -> 버려!

- C3. <보기> 있는 시 해석

한 지문 내 상이한 두 정서 표현: 정서가 바뀐 것인가? 하나가 역설인가?

- 웬만하면 <보기> 없이 판단하지 않기

시 해석하기

- 1. <보기> 없음
 - 표면에 집중 (명사의 상징적 의미 고려 X)
- 2. <보기> 있음
 - '적절한'
 - <보기>의 관점: <보기>대로 한 것은?
 - > <보기>에 답이 있다! (주로 어려운 시로 났)
 - 단어가 어려울 뿐 사실 대응 문제에 불과 (문제는 쉬움)
 - '적절하지 않은'
 - 정보 나열형: 짝 없는 선지가 답
 - 핵심형: 정보가 좁혀짐 -> 핵심 내용과 어긋나는 선지가 답

시 읽기 전에 항상 제목 확인하기!

모순관계 아닌 이상 양립 가능! (선지 판단할 때 주의)

- ex) '자조'와 '설움, 비애'는 모순관계 X -> 양립 가능

- - - - -

@ 역설법: 역설'적' > 역설 > 반어

- 역설적: 그냥 앞뒤가 좀 안 맞을 때 (문제에서 대체로 사용하는 선지 약화 표현)
- 역설, 반어: 오답 선지가 아닌 이상 문제에서 자신 있게 잘 쓰지 않는 표현
 - > 시험에서 이것 때문에 틀릴 일은 없을 것

@ 공간의 이동: 입체적 (다양하다는 뜻) ('입체' = '여러 개')

- **공간의 이동 != 시선의 이동 (문제로 보면 헷갈릴 수도 있음!)**
- 구별하기
 - 경험한 != 있는
 - 보는
 - 떠올리는

@ 시선의 이동: 입체감

- 원경: '저~' // 구름, 해, 달 // 외양
- 근경: '이~' // 꽃, 풀 // 내용물

- 모르겠으면 (혹은 정보가 없으면) 그냥 보류

@ 여운

- 형식: 종결
 - 1. 명사(형)
 - 2. 말줄임표
 - 3. 분명한 서술어 X (불완전한 문장)
- 정서: 감동 등

@ 수미상관: 대충 비슷하면 됨

- - - - -

\$ '잘 보여 준다': 선지 강화 표현 <-> '으로도', '이해될 수 있다', '함축하고 있다': 선지 약화 표현(비겁한 표현)

- 선지 강화 표현 들어간 선지는 방향만 얼추 맞으면 보류
- 선지 약화 표현이 둘 이상 들어간 선지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기

- C4. 시의 핵심 정보 파악과 논리적 판단

시의 핵심 정보 파악과 논리적 판단: 공부할 때 훈련 -> 실전에서는 그냥 직관적으로 읽고 풀기
시 분해, 분석보다는 시를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시를 잘 읽는 게 중요 (실전에서는 그렇게 풀)
중간에 '무슨 뜻이지?' X

정서, 태도 파악 (시의 핵심 정보)

- 1. 직접 제시: 금방 파악됨
- 2. 간접 제시
 - 배경 묘사: 행동, 표정, 호칭 등
 - 화자 --(투사, 투영)--> 외부(세계)
 - 상황: 금방 파악됨

<보기>를 과하게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작품과의 일치 불일치를 따지는 게 더 나옴

@ 객관화: 남처럼 표현하는 것

@ 부정적 정서: 이별, 죽음, 가난, 자유 X, , 무상감(덧없음)

@ 단순히 같은 감정이라고 서로 공감하는 것은 아님

@ '몰랐었다', '알았다': 깨달음

@ 숭고: 대단, 위대 -> 신, 자연, 인간

@ 직설 (<-> 완곡), 직접(매개체 X) (<-> 간접(매개체 O)): 수능에서 구분 안 시킴

@ 역동적: 조건 - 1. 힘 // 2. 생명력

@ 밤에 나오는 귀뚜리 같은 애들: 청각적 이미지 (문학적 약속)

\$ 분위기: 전체적인, 핵심적인 분위기 뜻함

\$ '섬세하고 부드러운' <-> '단호한'

\$ '시상이 확산': ex) 개인적 문제 -> 사회적 문제

\$ '<보기>를 바탕으로 ~를 이해~': <보기>대로 풀기 (지문 해석 X, <보기> 정리 O)

\$ 거리

- 물리적
- 심리적
- 인식: 몰랐다가 알게 됨 -> 가까워짐

\$ '시적 대상의 운동감': 뭐가 하나라도 움직였으면 O

\$ '환상적': 수능 문학에서는 비현실적, 현실 기반이 아닌 내용 출제 X (고전소설에서나 볼 수 있음)
-> 대부분 틀린 선지

\$ '역사적': 시에 역사적인 멘트가 나와야 함 (지식 X, 표현)

\$ '강조한다': 시에서 무언가를 강조하긴 함 -> 선지가 말하는 내용'도' 강조한다고 '볼 수는 있다' -> 보류

+ [특강] 이상과 현실의 괴리

이상: 있어야 할 것 <-> 현실: 있는 것

- 조화 -> 만족감(고전시가 (자연 친화)), 예찬 -> 숭고(가치)('와오!!!'), 우아(현실, 감각)('오...')

- 괴리, 대비: 부정적 현실, 문제 상황

-> 고뇌, 내적 갈등

- 1. 역사적 현실: 일제 강점기, 좌우 대립(6.25), 독재

- 당시: 소망, 비판

- 이후: 과거와의 화해(이해, 용서) 필요

- 1. 역사적 현실: 산업화, 도시화

- 공동체 -> 개인 // 정신 -> 물질

-> 소외, 정체성 및 방향 상실

- 2. (개인적인) 삶의 어려움: 이별, 질병, 가난, 한계, 세대 간 갈등

- 한계

- 존재론적 한계(늡음, 병듡, 죽음)

- 예술적 한계

- 생활의 한계

- 반응

- 비판

- 의지

- 소극적: 사소해도 자발적으로 한 게 있으면 의지 O

- 적극적: 극복 의지 (강한 신념)

- 순응 (잘 지냄) (인내와는 다름!)

- 체념

-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함 (주로 소설에서, '복잡한 심정')

Part 2. 현대소설

- C1. 장면 끊어 읽기

수능 현대소설의 기본 전제

- 소설 읽기와 소설 지문 읽기는 다르다!

- 소설 읽기: 긴 호흡 <-> 소설 지문 읽기: 순간 집중력

- 소설 지문: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잘라낸 부분 + 요약된 앞부분 줄거리 등 의도적 요소 다분

-> **출제자의 의도와 계획**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!

- 공부, 연습 -> 실전에서는 자연스럽게 파악 가능

- 기출 분석을 할 때: 소설을 왜 이렇게 잘랐을까?

- 이 장면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?

- 왜 이런 장면들을 통해 지문을 구성했는가?

- 장면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면 훌륭한 분석!

- 이 관계를 반영한 문제와 연결할 수 있으면 더 좋음!

- 실전에서: 인물의 내면에 집중해서 읽음 (인물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)

실전적 흐름: 제목 -> <보기>(직독) -> [앞부분의 줄거리] -> 지문 -> 문제(<보기>(판독) -> 선지 -> 지문)

- 2. <보기>

- 직독으로 지문의 문제 상황 파악

- '내용 설명형'만 -> 주제, 방향 파악 (시대 현실, 개인적 사정)

- 3. [앞부분의 줄거리]

- 인물 관계 파악 (특히 고전소설)

- 문제 상황(갈등, 고뇌) 파악

- 인물의 성격 파악

- 4. 지문

- 상황 통해 인물의 성격, 내면 파악

- 장면 변화: 시간, 공간, 대상 -> 내면 변화

- 시간 감속: 회상, 과거 제시

장면 끊어 읽기

- 1. 장면으로 구획 정리

- 장면 나누는 기준: 시간 변화, 공간 이동, 대상 전환 (+ 분위기 변화)

- 2. 인물 심리에 주목: 정서(감정), 태도(=성격)

- 태도(=성격) 변화

- 이전 --(이유, 계기 (인식(=값)))--> 이후

- 이유, 계기

- 대화(증언, 진술 등)

- 목격(장면, 글)

- 회상

- 3. 이분법

- 인물 vs 인물: 외적 갈등

- 내면 vs 내면: 내적 갈등

- 의미 vs 의미: 하나의 대상에 부여한 의미들이 일치하지 않을 때

<보기>의 복수 표현 놓치지 않기 (ex) 사람'들')

- 지문 내 인물과의 범주 일치 문제가 될 수도 있음

전지적 시점: 최초 심리 제시된 애가 주인공!

(특정 인물의 시각으로 서술 - 수능 현대문학의 90%가 이 방식 채택)

(인물은 고정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함)

인물의 정체성 = 캐릭터(성격)

-> 성격 변화(=태도(자세) 변화): 주제 제시

@ 병치: 사건이나 공간을 나란히

- 1. A, 그때 B (동시에 벌어짐)

- 2. A -> B -> A -> B (반복 교차 편집)

@ 직접 제시: (심리, 성격) 매개체가 없음

- 서술자가 직접 언급

- 말하기 기법과 유사 (개념 자체는 다름)

@ 간접 제시: 매개체가 있음

- 대화, 행동, 표정, 의상 등
- 보여주기 기법과 유사 ('(연)극적')

@ 의식의 흐름 (= 인물의 심리 표현 많음)

- 비논리적 -> 난해함(이해 어려움)
- > **제일 나중에 판단!**

(그냥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건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 그런 건지 난 구분 못함)

- 애초에 의식의 흐름이 정답이었던 적이 없음 (딱 단 한 번: 2005학년도 5월 학업성취도평가)

@ 삽화 형식으로 나열: 병렬적 구성(에피소드)

- 기승전결 X // CSI식 구성
- 애도 답이 된 적이 별로 없음 (**마찬가지로 가급적 손 대지 않기**)

- - - - -

\$ '서술자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' = '서술자가 교체됐다'

\$ 요약: 대충 간추림

- C2. 1인칭 주인공 시점

'나'(서술자) -> '나'(주인공)

- '나'(서술자): 자기고백적, 회상 (지속적)
 - 독백적 진술
 - 내용: '나'에 대한 '나'의 태도
 - 대화 거의 X

- '나'(주인공): 문제 상황 -> 갈등, 고뇌, 성찰

<보기> 서술 내용의 범주 제대로 파악하기: 설명한 내용이 지문 인물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

(ex) '일반적으로 인간은', '~하기도 한다' 등)

발문에 주목할 것

- '윗글에 대한 이해로~': 사실 관계에 주목
- '윗글에 대한 감상으로~': 보편적으로 확장

문학에서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방법: "A는 B다."

- 선지만 보면 맞지만 지문 전체의 흐름과 일치 X
- 조합의 오류: 따로 떼어 보면 그럴싸하지만 합치면 헛소리

과거와 현재 시점 구별하기

평가원은 중락을 두 번 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함

- > 지문에 이해 불가능한 잉여가 발생할 때도 있음 (쓸모없는 내용)

일인칭 시점

- 서술되는 시간: 현재 (주체)
 - 과거에 대한 현재의 인식, 평가에 주목!
- 서술되는 시간: 과거 (대상)
 - 사실 관계만 확인

지정된 지문 범위에 대한 문제(ex) '[A]에 대한 설명으로~)': 지문 전체 흐름을 고려할 것

@ 정체성 탐색: 나는 누구인가?

@ 인과 관계: 사건 A 때문에 사건 B 발생

- 사건: 하나의 공간, 하나의 시간대에서 일어난 일

@ 현재형 어미: 생동감, 담담한 어조

@ 이야기 전개 속도 (현재형 어미와 무관)

- 고속(가속): 빨리 다음 장면으로
- 저속(감속): 회상, 묘사, 심리, 대화 길게

@ 내적 분열

- 소설에서: 정신 질환
- 시에서: 흔히 쓰임 (시적 자아가 여러 개)

@ 독백: 내면 -> "발화" (원래 연극 용어, 누가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닌 말)

@ 내적 독백: 내면 -> '그대로' 씀 (서술자의 정리 X)

- 둘 다 엄밀한 용어는 아님
 - > '독백적 진술' (중얼거림)

\$ '객관적 진술': 1인칭은 객관적일 수가 없음

\$ '자신을 비추어 보는~': 성찰

- C3. 1인칭 관찰자 시점

내용상 특징

- 갈등이 (타 시점에 비해) 상대적으로 적음
- 인물에 대해 몰랐던 점을 알아가는 게 주된 내용

'나'(서술자) -> 남(주인공)

- '나'(서술자, 관찰자): 소설 지문에서 중요한 사람
 - 인식(얕), 태도(자세)
 - **주인공에 대한 관찰자의 생각: 출제 포인트!**
 - **'지금'의 생각이 중요**
- 남(주인공): 작품 전체를 봤을 때 주제를 구현하는 사람
 - 1. 이상함 (정신질환자, 기인 등)
 - 2. 사실 (정보 많이 제공)

".....": 굉장히 중요한 심리 표현!

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 일치 문제 (ex) '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~'

- 대체로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제공되면 출제되는 유형
- 시간이 좀 걸려도 됨 (지문과 선지 사이를 오가며 일치 여부 판단)
 - **한 번에 못 풀어도 됨**
 - **꼼꼼하게!!!**

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 구분하기

- 1. '나'의 비중으로
- 2. 모르겠으면 그냥 '나'의 행적만 따라가기 (나머지는 다 보조 정보로 취급)
- 3. 수능에서는 이 둘을 구별하는 문제가 애초에 안 나옴 -> 집착 X

앞 내용과 연결되지 않는 지문 내용

- 앞 내용 다시 확인해보기 ('뭐지? 앞에서 언급됐던가?')
- 앞 내용에 연결되는 게 없음: 그러면 뒤 내용에서 이어질 것

의미가 다른 하나를 고르는 문제 (ex) 'a~e 중 문맥상 함축하는 의미가 다른 하나는?')

- 단순 (+), (-)만으로는 구분 안 되는 경우도 있음
- > 기준을 잘 설정해야 함

인물의 심리적 반응, 태도 파악

- 1. 직접 제시
- 2. 간접 제시: 대화, 행동, 외양, 표정, 호칭 등
 - 출제 가능성 높으니 반드시 밀줄
 - 변화에 주목 (특히 호칭 변화)

서술자(관찰자) -> 주인공

- 서술자(관찰자)
 - 깨달음(? -> !): 심리 변화 = 인식과 태도의 변화
 - > 시간 기준으로 정리 (못하면 문제 제대로 못 풀)
 - **순서: 문학 독서 안 가리고 매우 중요!!!**

@ 인물 간의 갈등

- 대화 많음
- 대체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잘 나옴
- 내적 갈등과 혼동하지 않기! (은근히 실전에서 잘 틀림)

\$ '객관적'

- 평가원: 잘 안 쓰려고 함 ('애초에 문학이 객관적일 수가 있나?')
 - 굳이 쓴다면:
 - 1. <보기>
 - 2. 틀린 선지
 - 3. 상대적 객관성 (지문(감정) < <보기>(묘사))
- 비평가원(학력평가 등 잡시험들): 남발함
 - 대충 대화, 풍경, 행동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 때 사용
 - 근데 풀려고 보면 애매함
 - > 그냥 보류했다가 마지막에 보자

\$ '서술자의 시각' = 서술자의 태도

\$ '현학적': 서술상 특징이 될 수 없음 // 현학적 인물만 가능

\$ '<보기>를 바탕으로~' = '<보기>의 관점으로'

- 지문의 내용 타당성보다 <보기>의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!

\$ 시대적 배경, 역사성, 역사 의식: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 제시되어야 함 (ex) 6.25 전쟁 등)

- C4. 3인칭 시점

사건 -> 많은 대화 -> 갈등 -> [쟁점(화제) -> 각 인물의 입장]: 심리

[중략 부분의 줄거리]: 써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음! 빼먹지 말고 잘 읽기

문학: 선 일치 후 추론

- 100% 이해 X, 흡족할 정도까지만(문제에 따른 기준(기대치)까지만)

일제강점기 소설: 모르는 어휘 많음(사실상 고전소설) but 문제 푸는 데는 영향 없으니 신경 쓰지 말 것

3인칭 시점의 소설 지문 읽기

- 1. 특정(고정) 인물의 심리를 따라가자

- 변화: 태도 -> 인식 -> 태도

- 인식 전후 구별하기!

- 2. 상황을 파악하자?

- 상황이 너무 다양 -> (우리 수준으로는) 이해도 떨어짐

-> 1을 바탕으로 추론 가능!

작품의 형식이나 기법에 관한 <보기>는 먼저 읽지 않아도 됨

@ 특정 인물의 시각으로 서술

- 전지적 시점(주로 제한적)
- 서술자 -> 특정 인물
 - 1. 심리 // 2. 시선 처리 // 3. 호칭
 - > 특정 인물의 심리에 주목

@ 이분법적 구조: 쟁점에 대해 입장이 갈라짐 (꼭 사람이 두 명일 필요는 X, 혼자서도 고뇌 가능)

- 출제 가능성 높으니 반드시 밀줄!

\$ 서술상 특징 문제 - '특정 인물의 시각으로~': 다른 조건 없으면 한 명의 시각 (상황에 따라 변화 X)

\$ '입체적': 무엇이든 다양한 것이 나타나면 O

\$ '비판적': 반드시 **문제 의식**이 나타나야 함!

- 작가가 **문제 의식**을 가진 경우와 서술자나 등장인물이 **문제 의식**을 가진 경우를 구별해야 함

+ [특강] 시간의 흐름, 그리고 입체감

\$ 시간의 흐름

- 1. 시상(시), 사건(소설)이 전개
- 2. '엿보인다', '보여준다' 등 표현이 뒤에 붙음 -> 출제자의 지정 범위에 맞게 적절히 판단 (1과 다름)

\$ 회상: 인물이 주체(1인칭 서술자) (**3인칭 제시는 회상이 아님!**)

\$ 과거 장면의 제시: 그대로 재현("대화")

\$ 시간의 역전(역행): 순행 중 과거로 갔다가 돌아옴

\$ 입체감: 다양하다는 느낌 (시공간, 대상)

- 시간: 순행 X // 역전
- 공간: 다양한 공간 언급
- 대상: 다양한 대상 언급

Part 3. 고전소설

- C1. 해석의 어려움 & C2. 지문 분석하기

자습(기본기)

- 1. 고전소설 필수 어휘 공부

- 암기까지 할 필요는 없음 (한 번만 정독, 그 후부터는 필요할 때마다 사전처럼 찾아보기)

- 2. 인물 관계 파악 훈련 (동일 인물 -> 다른 호칭) (태도만 기르는 것이니 한 번만 하면 됨)

고전소설 필수 어휘

- 훈련도감 참고

지문 분석

- 1. 과거, 미래

- 과거: 요약(서술자, 인물 통해 // 대화 중) (간추려진 느낌)

- 미래: 예언, 암시

- 2. 공간 변화: 칼같이 구분!!!

- 동시 진행: 병치

- 특별한 공간: 공간 변화에 따른 배경 묘사 -> 출제 요소

- 3. 화제 변화 (너무 의식할 필요는 X)

집중 포인트

- 1. 인물(관계) 파악

- 중요하지 않은 인물은 없다! 단 한 마디라도 말을 했으면 문제로 나올 수 있음!
(노비, 어린이 등 엑스트라)

- 2. 긴 대화

- 과거 사건 요약

- 주장(설득): 근거가 엄청 많음

-> 읽을 때 기억 X, 주장 정도만 파악해놓기 (문제 풀 때 재확인)

- 고사 인용 여부: 문제로 나옴 ("~가 말했기를~")

- 3. 서술자의 (직접) 개입

- C3. 초월적 세계

@ 과도한 주관적 묘사: 서술자 개입으로 취급

@ 초월적 세계

- 1. 공간: 장면 전환 (주로 꿈의 형식)
- 2. 초월적 존재: 영향(도움, 예고)

- - - - -

\$ '갈등을 구체화': 대화로 싸워야 함

\$ '인물의 외양 묘사': 얼굴 생김새, 복장, 머리 모양 등에 대한 묘사

\$ '인물의 심리' != 인물의 상태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

\$ '<보기>를 참고하여 ~를 감상한 내용으로~': 지문에 없는 내용도 나옴 but 일치 수준에서 해결 가능

- C4. 현실적 세계

지문 읽기

- 1. 초현실적 내용도 나올 수 있음
- 2. 갈등: 주제, 대화(설득, 요약)
 - 설득: 주장, 근거
 - 읽을 때는 주장, 문제 풀 때는 근거 보기
- 3. 고전소설은 디테일이 중요! 이 점에 있어서는 시간 단축 X

복잡한 [중략 부분의 줄거리]: 출제 고려해 엄선된 내용이니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기!

문학 문제 풀이의 핵심

- 틀린 내용 찾기 (노골적) -> 사실 관계 확인
 - 학생 수준이 아닌 선지: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만 파악 or 보류
- 적절한 선지: 일치 or 약간의 추론

Part 4. 고전시가

- C1. 해석의 어려움

자습(기본기)

- 1. 필수 어휘 (고전소설과 마찬가지로 암기 X)
- 2. 필수 작품 (표절 -> 유사 표현 많음) (핵심!)
 - 상춘곡 - 면앙정가
 - 사미인곡, 속미인곡, 관동별곡
 - 시조들: 윤선도의 연시조 + 평시조
- 3. 기출 분석, EBS 연계

고전시가 필수 어휘

- 훈련도감 참고

관습적 상징: 약속 (+ 필수 어휘 이용해 해석)

- (ex) 새 -> 청각(작아서 밤에 안 보임) -> 슬픔, 한)

기본적인 지식은 갖춰서 문제 풀 때 멍기적거리지 않도록 하기!

- 기본 지식으로 푸는 문제 <-> 현장에서 푸는 문제

EBS: 다른 건 몰라도 고전시가는 꼭 보기!

- C2. 화자 in 자연

고전시가에는 킬러 문제가 없다: 답은 쉽게, 오답은 어렵게

- 오답까지 이해하려는 것은 시간 낭비
 - > 큰 틀만 파악! (애초에 이해할 필요가 없음)

- - - - -

@ 사대부의 뇌 구조

- 속세[흥진, 인간 세상, 옥당(정치)]: 부정적, 가치중립적(그냥 사람 사는 곳)
 - 1. 유교적 이상을 실현할 세계 (지향의 공간) (-> 자연 부정)
 - 2. 타락한 정치 세계 (거부의 공간) (-> 자연 긍정)
 - > 이중적

- 자연[산수, 강호, 임천, 풍월]: 탈속세
 - 1. 수양, 학문(공부)
 - 2. 즐김(만족감, 자부심) -> 설의, 영탄
 - 3. 고뇌(내적 갈등): 임금, 나라 걱정, 유배 (정치 복귀 욕망) // 늙음 한탄(탄로)

@ 속세와 자연의 이분법

- 속세: 욕망 // 시비, 다툼 // 분별 // 바쁨
- 자연: 무욕(무심) // 친화 // 동화 // 한가함
 - 무욕(무심) 형상화
 - 상징적: 백운, 백구, 빈 배(마음)
 - 소박한 삶(관념적 가난): 단표누항
 - 의: 삿갓, 도롱이
 - 식: 박주산채, 물고기
 - 주: 초가삼간(모옥), 띠집, 암혈(동굴)

- 친화, 동화 -> 의인화, 말을 건네는 방식

@ 자연을 즐기는 과정

- (이동) -> 자연을 완상(즐기며 바라봄) -> 흥취
 - 완상
 - 1. 시선의 이동: 원경, 근경
 - 2. 색채: 색채어, 자연물
 - 3. 계절감

 - 흥취
 - 1. 규범적(유교적)
 - 2. 술 -> 신선(취선)
 - > "무릉도원이(기산영수가) 예 아니냐?" (만족감 표현)

\$ 'A는 B를 상징한다' = 'A는 B다'

\$ 대조: 속성 대조

\$ 사회적 규범: 유교적 삶, 도리

\$ 자연과 현실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: <보기>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음

- C3. 화자 in 현실 세계

주제: 1. 풍류 // 2. 도덕적 이상 // 3. 현실 비판 // 4. 삶의 힘듦(가난)

<보기> 비중 판단

- '관점'(태도), '가장 적절한', '바탕으로' -> 고비중

- '적절하지 않은', '참고', 내용 설명 -> 저비중 (작품 비중 높아짐)

고전시가,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가? (어디까지 읽어야 하는가?)

- 70% 이해: 35% 지문, 35% 문제

@ 기행

- 여정: 장소 -> 간 곳

- 견문: 시선 -> 본 곳

- 감상: 생각 -> 떠올린 곳 (여행 중 != 여행 후)

- **다 다름! 구분해야 함!**

- 간 곳과 본 곳(실제)만 체크!

\$ '다양한 감각적 심상': 적어도 두 가지 이상

\$ '덧붙여지기도 한다'(<보기>): 없어도 됨

- C4. 평민의 작품 세계 & 가난

해석: 70% 정도만

- 상황에 대응되는 정서 판단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됨 (필수 작품 여러 번 보다 보면 가능하게 됨)
(ex) 가난 - 한탄, 극복 // 자연 - 친화 // 정치 - 소망

Part 5. 극 문학

- C1. 실험극

기본 흐름

- 1. 인물 수 확인: 4명 이상이면 인물 관계 파악
- 2. 그 다음부터는 현대소설과 동일

극 문학

- 희곡

- 실험극, 서사극
- 전통극

- 시나리오(영상물) -> 카메라 촬영, 편집

@ 낮설게 하기 기법

- 실험극

- 무대(인물)(해설자 역할) <-X- 관객(연극으로 인식): (현실) 비판, 성찰

- 전통극:

- 무대(인물) <-(집중)- 관객(현실로 인식)
 - 대화, 행동 등 = 보여주기 = 극적 제시

- C2. 전통극

@ 무대 밖 사건: (ex) "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 올 거야. ~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.")